2003년 2월 28일

학군사관후보생(ROTC) 제41기 임관식 치사

친애하는 학군 제41기 신임장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와 내빈 여러분,

신임장교 여러분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늠름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은 고된 훈련과정을 훌륭히 마쳤습니다. 학문에 정진하면서 힘든 군사훈련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무를 두루 갖춘 대한민국 국군장교로서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학생중앙군사학교장 박정주 장군을 비롯한 교관과 훈육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학의 은사님들과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나는 국군의 통수권자로서는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 정부는 국민이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참여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가 중요합니다. 국가안보는 언제나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을 바쳐 대한민국의 평화를 반드시 지켜 낼 것입니다. 더욱 분발하고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방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신임장교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민은 꿈을 현실로 이루어낼 의지와 능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탄과 기대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 안보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동북아 중심국가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가 필수적입니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일본과의 공조,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더욱 공고하고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도 변화하고, 한반도 정세도 바뀝니다. 우리는 어떠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과 준비에 대해서 마치 엄청난 상황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처럼 정략적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군과 함께 미래의 변화에 대해 빈틈없는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나는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21세기형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데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미래의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첨단의 정보와 기술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사기충천한 군대가 강한 군대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군의 명예가 존중되고 복지가 한층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신임장교 여러분의 두 어깨에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방임무의 완수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임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장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보다 부하를 더 걱정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장교의 길은 더욱 명예롭습니다.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면서,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13만여 선배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ROTC의 업적과 전통을 더욱 빛나게 이어주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또 보답할 것입니다. 학군 제41기 신임장교 모두에게 무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